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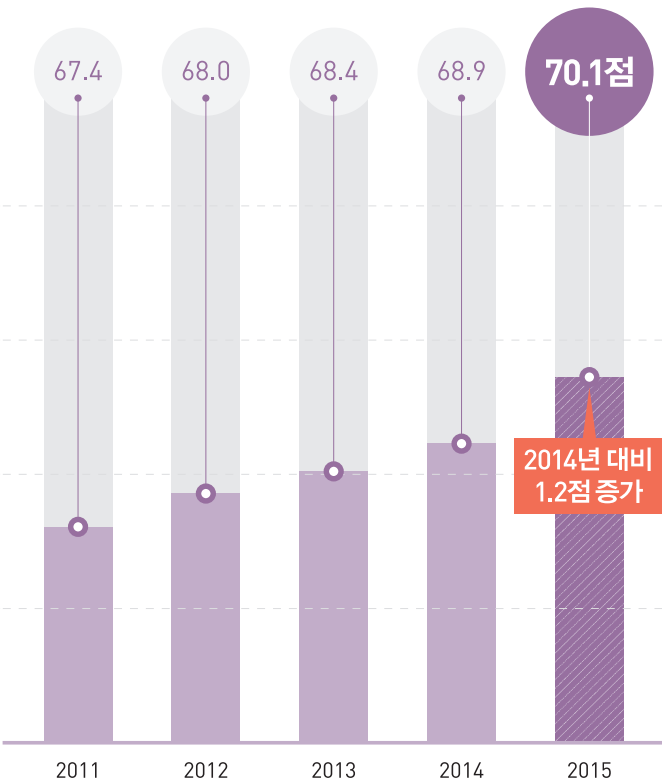
2017
No.62

발행처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발행인 | 유재일 편집인 | 주혜진 디자인 | 디자인스튜디오203 대전 발행일 | 2017. 2. 28.

국가성평등지수 70.1점, 지역성평등지수 73.3점 전년보다 성평등 수준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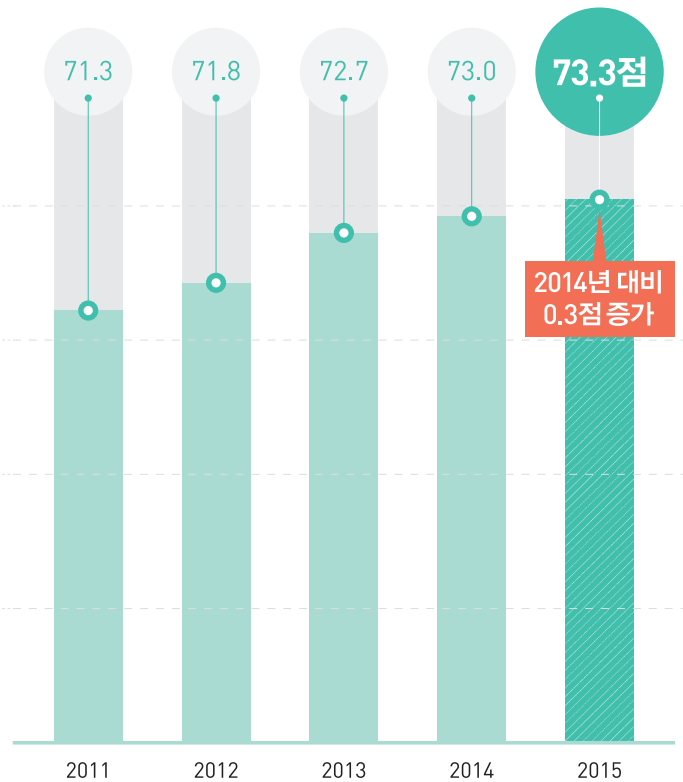
국가성평등지수 추이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출처 | 여성가족부,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지역성평등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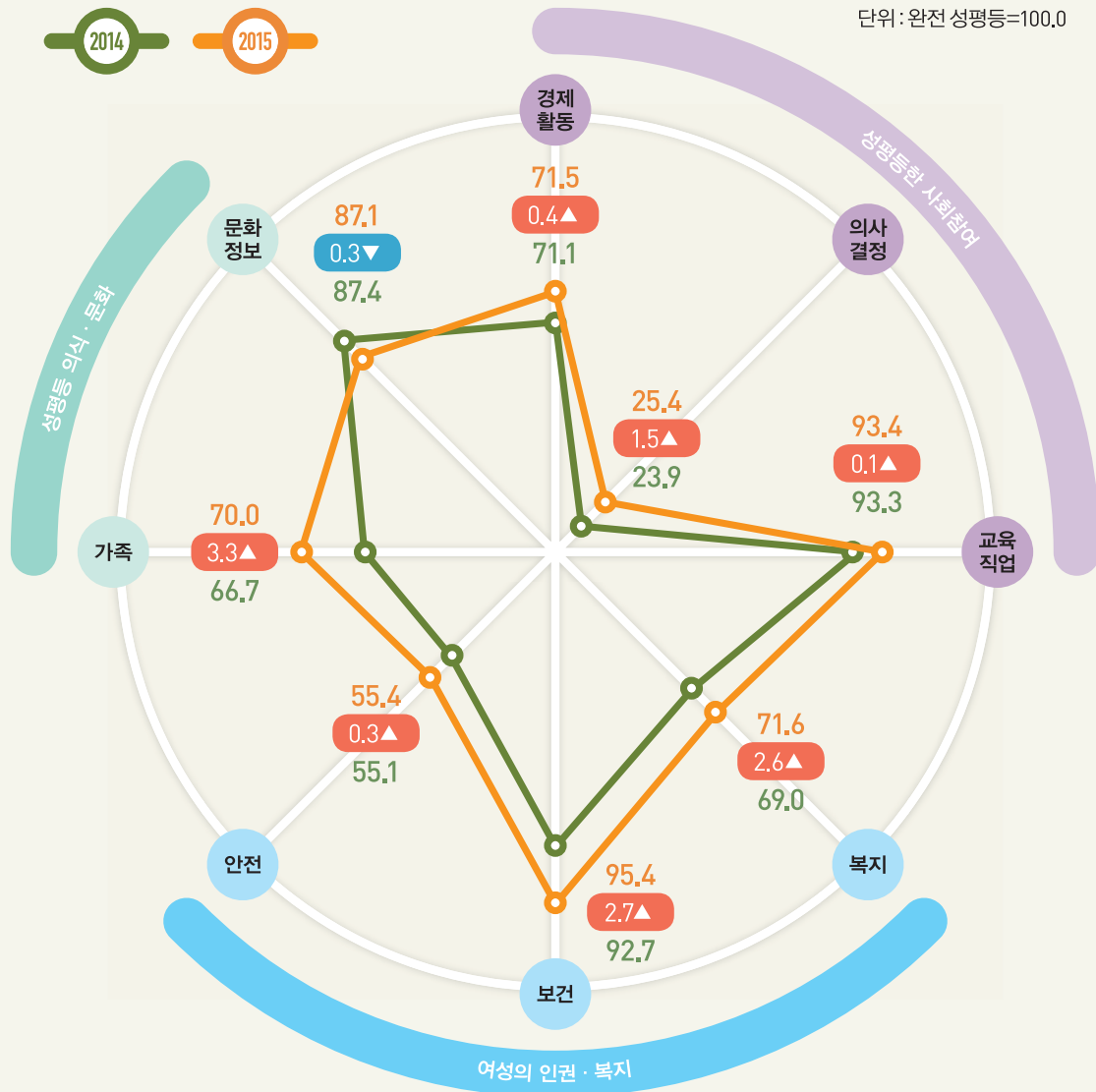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출처 | 여성가족부,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5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국가성평등지수는 70.1점, 지역성평등지수는 73.3점으로 2014년(국가 68.9점, 지역 73.0점) 대비 상승해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지역성평등지수 간 상이성은 지표 구성의 차이에서 기인(국가성평등지수는 25개, 지역성평등지수는 23개 지표로 구성), 또한 지표명은 동일하나, 국가성평등지수에 활용한 통계로는 시·도별 구분 통계 분석이 불가능해 자료원이 상이한 경우도 있다.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보면 2015년 기준 보건 분야가 95.4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교육·직업훈련 분야(93.4점), 문화·정보 분야(87.1점), 복지 분야(71.6점) 순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았다. 이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로 25.4점이었고, 그 다음은 안전 분야(55.4점), 가족 분야(70.0점), 경제활동 분야(71.5점)

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해 보면 8개 분야 중 7개 분야의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가족 분야(66.7→70.0점, 3.3점↑)에서 상승폭이 컸다. 반면 문화·정보 분야(87.4→87.1점, 0.3점↓)는 하락했다.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출처: 여성가족부,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대전시 보건 분야 성평등지수 8개 분야 중 가장 높아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전체와 시·도별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과 방향을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수단이다. 8개 분야*로 나뉘어 측정되는 종합지표로 완전 성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산정한다.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는 3개 영역, 8개 분야, 23

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1위 지역과 대전시의 성평등지수 값을 비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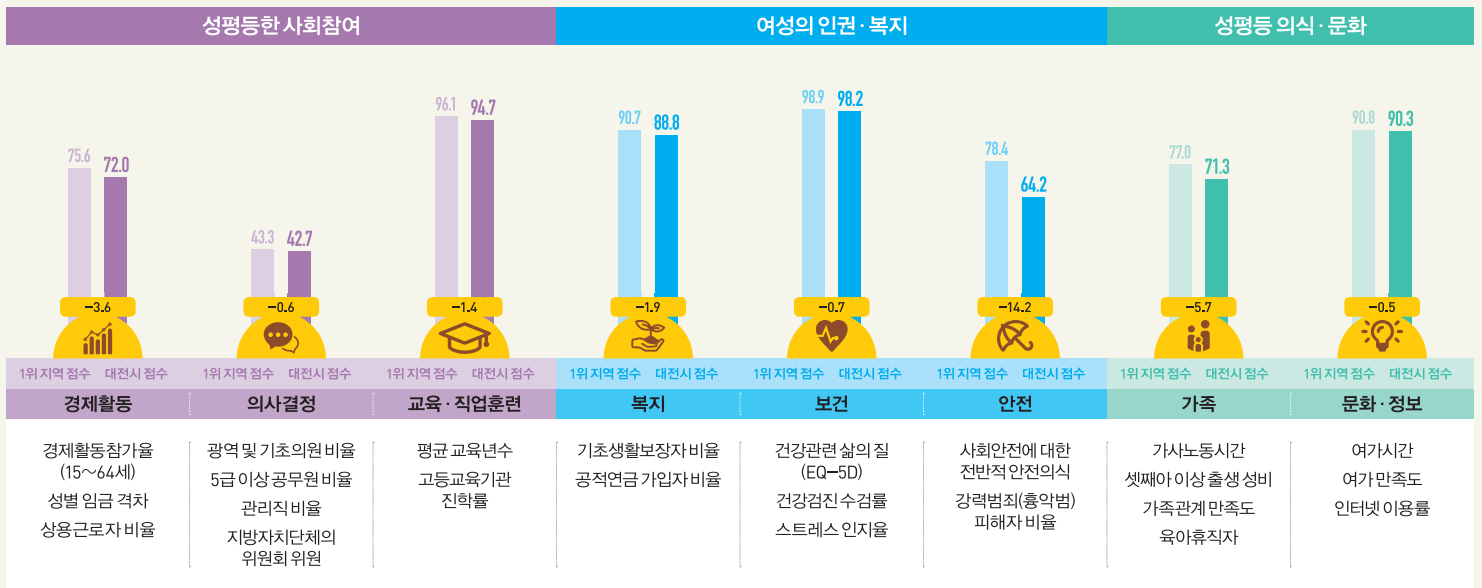
*(8개 분야) ① 경제활동, ② 의사결정, ③ 교육·직업훈련, ④ 복지, ⑤ 보건, ⑥ 안전, ⑦ 가족, ⑧ 문화·정보

*지표는 성비로 파악

*출처: 여성가족부,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 지표 측정 결과

단위: 완전 성평등=100.0



맛있는 사고에 주름을 잡다 제1회 젠더 콜로키움



여성·가족분야의 새로운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기 위한 젠더콜로키움이 '젠더화된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이라는 주제로 2월 3일 2017년 첫 번째 문을 열었다. 첫 번째 주제는 '노동을 성별화하기: 화장품 행사도우미의 판촉노동 사례연구'(이은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로 판촉행사에 동원되는 젊은 여성도우미들이 여성성을 어떻게 내재화하고, 자신의 노동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젠더화된 노동시장을 분석했다. 두 번째 주제인 '장시간 근로와 조직: 초과근로시간이 여성관리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한보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은 근로시간이 여성 관리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조직문화의 젠더 편향성에 주목했다.

여성·가족분야의 새로운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기 위한 젠더콜로키움이 '젠더화된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이라는 주제로 2월 3일 2017년 첫 번째 문을 열었다. 첫 번째 주제는 '노동을 성별화하기: 화장품 행사도우미의 판촉노동 사례연구'(이은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로 판촉행사에 동원되는 젊은 여성도우미들이 여성성을 어떻게 내재화하고, 자신의 노동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젠더화된 노동시장을 분석했다. 두 번째 주제인 '장시간 근로와 조직: 초과근로시간이 여성관리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한보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은 근로시간이 여성 관리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조직문화의 젠더 편향성에 주목했다.

대전세종 정책엑스포 2017 제2회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제2회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이 오는 3월 17일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7년 3월 17일(금) 13:20~15:10

장소 | 옛 충남도청 2층 소회의실

시간	내용
13:20~1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 인사 윤정로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공동대표(KAIST)
13:25~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 문경희(창원대학교) · 발표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 / 이혜숙(경성대학교) · "여성정치세력화의 현황과 과제: 총선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김경희(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임정규(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지방자치위원장) · "양성평등 지방자치와 남녀동수 기초의회제: 타당성 및 과제" / 이진옥(전대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토론 김진화(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교육위원장) · 박정현(대전광역시의원) · 신상숙(서울대학교) · 이은파(연합뉴스 대전충남취재본부장) · 이한태(충남대학교) ·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침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